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통합 논의 본격화

조직진단 용역 내달 실시... 결과 따라 7~8월 이후 진행

전체 조직이 두 개로 이원화돼 있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감독기관인 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 업무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이 2개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원화된 두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다음달 실시, 결과에 따라 기관 통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조직 통합 논의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8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인 국립아시아문화원에 속해 운영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원화된 두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적이 적지 않았다. 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만료되기 때문에 두 기관의 통합 논의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전당의 인력은 80여명이며 아시아문화원은 1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중인 문화전당의 임명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당장 공석이 장기화 되면서 아시아 문화발전소 도약과 국제적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당초의 청사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처럼 중요한 전당장과 조직이원화 문제는 향후 법적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당장의 경우 직위를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조직 이원화 또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국가 예산이 600억여 원 가량 투입되는 문화전당이 국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할 전당장이 공석이라는 사실은 전당 차원뿐 아니라 아시아문화발전소 견인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북미 비핵화·상응조치 거리 좁히기 '중재자' 역할 집중

북미정상회담 27~28일 개최 문 대통령 '운명의 3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을 하기 위해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회의장에 들어서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집중할 전망이다. 북미 양자 간 협상에 있어 물밑에서는 충분히 이런 조율에 나선다는 것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을 비공개 방문한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하기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 등도 이런 조율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번 북미 간 회담의 결과가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의 동력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중재역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혹은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중전선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이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작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급격히 속도가 붙으며, 자연스레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체제 논의를 앞세워 자유한국당 일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정은 위원장, 3~4월 서울 답방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회담 시간표가 6일 공개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방'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작년 말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답방 무산을 아쉬워하며 향후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될 거라는 가정 아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3월 중순~4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100주년 3·1절에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북미정상회담과 답방 문제까지 함께 준비하기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 1차 북미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개최)의 상징성을 감안한 '4·27 답방'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여정의 속도와 방향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북미 정상 간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오늘 구제역 일제 소독의 날

전남도가 7일 구제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모든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한다. 이는 연휴 기간 축여 유입됐을지 모를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소독장비 159대(지자체 36대, 군 제독차량 1대, 농협 공동방제단 99대, 틀넉경영체 소독기 8대, 과수 SS살포기 15대 등)를 총 동원한다. 주요 소독장소는 밀집 사육지역,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농장 내부를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한우협회와 한돈협회에서는 회원농가에 문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전화 등을 통해 농가 소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역 축협에서는 공동방제단 99개단을 활용해 농가 스스로 소독이 어려운 소규모와 고령 농가를 방문해 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서 설 연휴 기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하면서 위기

경보수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전남도는 1299대의 소독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2만2722개소의 농가와 축산시설 소독을 했다. 또 축산농장 2만 농가에 매일 두 차례 문자를 보내 축산 농가 및 외국 인근로자 모임 금지, 소독 및 외부차량·사람 출입통제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일선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3000마리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2일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는 21일까지 가축사육 15개소를 폐쇄 조치 했다. 밀집사육지역을 포함해 소·돼지 사육농가에 시군에서 보유한 생석회 182t과 농협에서 긴급 공급한 4t을 뿌렸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진군 군동면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구제역 방역대책을 살피고 차단방역을 당부했으며, 연휴 마지막날인 6일 박병호 행정부지사도 함께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귀농·귀촌,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전남 '60일 체험 프로젝트' 가동... 12일까지 마을 모집

심각한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남도가 전남형 인구대책을 내놨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젝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다른 지역 사·도민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귀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전남 외 지역 거주인이 최장 60일간 지역 농어촌에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사군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마을과 농가 등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인원은 350팀(팀당 1~4명)이다.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비 1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하며, 그동안 도와 시군 관계자, 관련 전문가, 체험마을 대표 등과 수차례 회의와 토론,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체계를 만들어왔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 민박시설을 갖추고 귀농어 및 귀촌 교육, 현장체험, 주민교류 등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마을과 농가 운영자는 올해 4~7월과 8~11월, 상·하반기 2회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사업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해온 삼성물산 등 대기업과 서울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와 같은 오프라인망과 인터넷 키워드 광고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온라인망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월부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가자에게 체류 기간에 따라 재능기부, 지역 농자·농업 정보 등 파악, 마을 대표자 면담 등 프로그램 의무 이수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오천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최신규 H.010-3605-5000

임야

단독섬/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8천
- 무안읍 원동·다시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주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운전저서부지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평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무안 천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화정동 건물 대지 388㎡ 건물 581㎡ 보종금 1억2천 월 700천 수입 13억8천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충장로 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2억 전세 1억8천 월 1100.25억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물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인읍 1213㎡ 강정 6억4천 대체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동산 매매

• 남악 신도시 •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 매 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점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기)	광주교육대학교(197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모집/과정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 연속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속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